

도시 가계의 여가오락서비스 소비지출구조 및 영향요인분석

김 영 숙 · 심 미 영[†]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 진주국제대학교 가정복지학과

An Analysis of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for Leisure and Recreational Service in Urban Households

Young-Sook Kim · Mi-Young Sim[†]

Dept. of Living Science, Kyungsung University

Dept. of Family Welfare,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for leisure & recreational service in urban households.

For these purpose, the data collected 175 households in Pusan metropolitan city.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verage monthly expenditure for leisure, recreational service was 190,342 won. And their expenditure for leisure & recreational service share was 12.89 % of total expenditure. Those expenditure with high income elasticity were hobby & culture education, and journey. And those with low income elasticity were play & inspection, and health & sports. In leisure & recreational service expenditure,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 were job and degree of household head, and income.

Key Words :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leisure & recreational service, income elasticity.

[†] Corresponding author : H.P : 016-565-0220, e-mail : sim312@hanafos.com

I. 서론

최근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기계화 및 자동화, 노동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되고 있고, 특히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됨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으로써 여가의 활용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는 여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여가가 더욱 중요한 생활영역이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에 더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조사연구에서도 돈을 더 벌기보다는 여가를 즐기겠다는 여가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의숙, 1996). 그러한 경향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소비자의 여가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면에서 여가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한층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가는 휴식이나 노동력 재생산 및 자기실현의 기능을 하여 그 자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여가활동이 양적으로 팽창한 반면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여가활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준이 향상하였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실증적 분석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여가활동의 제약요소는 시간과 비용으로(김의숙, 1993 ; 표영희, 1996 ; 강석희, 1999), 비록 현재는 각종 제약조건 때문에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들 제약 조건이 개선된다면 보다 활동적인 형태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다(오순환, 2000). 여가시간과 여가비지출에서 불만족하는 경우 여가만족도가 낮아 여가비지출이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이현아 외, 1999; 이정연 외 1997) 여가소비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Campbell, 1976) 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여가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데, 사회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가의 가치를 중요시여기며, 여가활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취미 및 교양활동', 능동적 성격의 '스포츠활동', 자연과의 접촉과 동적인 성격이 강한 '행락 및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김의숙외, 2000). 게다가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인하여 여가 패턴과 소비지출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은 어느 정도이며,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한다. 둘째, 가계 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정의

근대자본주의가 발달해 가는 과정 중에 여가는 노동의 수단이 되고, 개인은 금욕과 노동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청교도주의라는 형태로 체계화되고 자본주의와 산업사회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된 여가의 개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이 되었다. 한편 현대에 와서 여가의 개념은 일반에게도 중요한 개념으로 된 것은 노예적인 장시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비롯되었다.

여가란 일이 배제된 자유시간을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유라는 의미는 노동시간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런 구속 없이 된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서양의 여가는 할일이 없는 무료한 상태가 아니라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오순환, 2000). 따라서 여가는 사회가 가정 혹은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활동으로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휴식, 기분전

환, 지식의 확대, 자발적인 사회참가, 자유로운 창조력 발휘 등을 위해 행하는 활동이다.

또한 여가활동과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 레크레이션이 있다. 레크레이션은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고요한 만족을 주는 것으로서 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가만족이다(김의숙 외, 2000). 이러한 레크레이션 개념은 여가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여가(leisure)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시간(예를 들면,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일하고, 학생의 경우 공부하는 시간 등)외에 자유롭고 여유 있는 한가로운 시간을 말하며, 참가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 행해지는 자발적인 활동(레크레이션)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가오락서비스는 레크레이션에 초점을 둔 여가개념이다.

2. 가계의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감소를 보였던 가계소비 지출은 1999년 접어들면서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도 민간소비지출은 10.3%의 증가를 보여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0%를 상회한 것에 이어, 2000년에도 커다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품목별로는 내구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지출목적별로는 필수적 지출보다는 선택적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병화 · 문소상, 2000). 그 중 특히 선택적 지출에 해당하는 오락문화비 지출은 IMF 이후 1998년 16.3%의 감소를 보였으나 1999년 15.1%의 큰 폭의 증가에 이어 2000년에도 15.5%의 증가추이를 보여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여가비지출의 구성비와 변화의 추이를 분석한 것은 <표 1>과 같다.

<표 1> 여가비지출의 변화

년 도	가계지출 중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중 교양오락 서비스		교양오락서비스 비목별 구성비와 변화추이											
					공연입장료		운동경기 관람료		운동오락시설 이용 및 기구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단체여행비		숙박비	
	구성 비	변화 추이	구성 비	변화추 이	구성 비	변화 추이	구성 비	변화 추이	구성 비	변화 추이	구성 비	변화 추이	구성 비	변화 추이	구성 비	변화 추이
1982	3.7		34.8		4.6		0.4		3.9		1.8		23.9		3.8	
1983	3.8	9.1	39.2	22.6	4.1	-7.4	0.3	-19.3	4.4	18.3	1.5	-11.7	31.2	36.2	2.4	-34.1
1984	3.6	0.6	40.3	3.6	4.2	0.1	0.3	-8.9	5.9	30.2	1.8	16.6	31.1	-3.3	4.0	60.5
1985	3.5	1.9	43.3	9.4	5.3	19.5	0.3	-2.3	5.7	-7.9	1.9	2.3	34.0	3.5	4.7	13.2
1986	3.8	14.2	43.4	14.5	5.4	16.6	0.5	73.7	7.2	43.7	2.1	24.3	35.7	20.7	4.7	15.0
1987	3.9	14.9	39.0	3.2	5.0	18.6	0.2	-53.4	6.4	16.7	1.8	10.5	21.1	-23.1	6.2	68.6
1988	4.1	15.8	38.3	13.7	4.3	2.1	0.7	382.2	7.0	29.0	1.8	19.7	24.7	37.6	4.5	-13.5
1989	4.9	42.7	35.3	31.8	3.4	22.3	0.2	-64.9	6.9	52.7	1.3	12.0	19.7	23.5	3.3	12.3
1990	4.7	1.9	35.0	1.1	2.8	-14.9	0.1	-7.8	7.0	5.8	1.2	-8.3	17.8	-5.9	4.0	27.4
1991	5.0	16.8	35.8	19.4	2.4	0.0	0.1	27.3	7.8	27.7	1.0	0.7	17.6	14.5	3.8	10.2
1992	5.0	7.4	40.3	21.1	2.7	10.4	0.1	-2.9	11.2	42.3	1.3	22.7	19.0	6.3	5.0	30.0
1993	5.1	5.5	44.9	17.3	3.6	23.8	0.2	35.8	17.5	45.9	2.6	96.0	24.5	21.0	5.0	-7.4
1994	5.1	6.2	44.9	6.2	3.6	8.9	0.2	-15.9	20.0	22.3	1.4	-42.0	25.0	8.7	4.5	-4.6
1995	5.3	9.3	45.6	11.0	3.1	-6.1	0.3	68.6	9.5	-47.8	1.7	30.8	26.0	14.1	4.3	5.1
1996	5.3	8.0	46.5	10.1	3.2	12.1	0.2	-13.7	9.3	4.2	1.5	-5.6	31.9	31.6	4.7	18.4
1997	5.2	-2.6	49.1	2.9	3.8	7.5	0.2	-2.9	12.5	23.4	1.6	-2.5	34.6	-1.1	4.2	-17.9
1998	4.5	-29.3	50.7	-26.9	5.5	-8.1	0.2	-37.1	18.5	-6.5	2.2	-11.7	18.2	-66.7	4.5	-32.6
1999	4.9	21.6	49.1	17.7	5.3	26.1	0.2	35.8	16.0	13.0	1.5	-11.2	23.7	70.6	4.5	29.7
2000	5.2	15.0	46.9	9.9	4.5	4.6	0.1	-25.5	16.1	25.4	1.4	11.0	26.7	40.1	3.7	2.2
평균		10.5		10.5		7.6		20.5		18.8		8.5		12.7		10.1

※ 1982-2000년 통계청의 도시가계년보를 토대로 분석한 구순목(2001)의 "한국인의 여가소비지출구조분석"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Thompson & Tinsley(1978)는 소득을 통하여 여가비지출을 설명하려 하였다. 즉, 미국 South Carolina의 104개 가계의 1955-7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레크레이션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구한 결과, 모든 소득집단이 1보다 큰 탄력성을 보였다.

Dardis et al(1981)은 1972-1973년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레크레이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연구한 결과 소득이 인구통계적 특성과 더불어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고, Dardi et al(1994)은 1988-89년도 미국 CES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 인종, 교육수준이 여가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Talbot(1989)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도시거주자일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가서비스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1989)의 연구에서는 총월수입, 부인의 직업, 가족수가 교양오락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성민(1992)의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선택재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한 연구결과 교양오락비를 포함한 선택재의 소비지출이 가계소득, 가구주의 교육수준, 주택소유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정연 · 심미영 · 김영숙(1997)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서비스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순목(2001)의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도시가계조사자료의 1970년 1/4분기부터 2000년 1/4분기까지 이용하여 여가소비지출을 포함하는 교양·오락비에 대한 소득탄력성 계수를 추정한 연구결과, 1.212로 1보다 큰 탄력적으로 나타나 소득이 1% 변화할 때, 여가비지출은 약 1.2% 변화함을 나타낸다. 시대별로 비교해보면, 1970년대는 소득탄력성 계수가 1보다 적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대의 경우 의식주 등 생활 필수적 소비지출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이루어져왔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1980년대는 탄력적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생활필수적 소비지출에

필요한 일정수준을 넘어서 여가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의 교양오락비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0년대의 경우 교양오락비의 세목에 대한 소득탄력성 계수의 추정결과 교양오락서비스의 경우 1.352로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10 분위별 분석결과 모든 소득집단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많은 집단으로 갈수록 여가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80-1990년대를 걸쳐 우리나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모든 소득계층이 선택적 지출성향이 큰 여가부문에 관심을 쏟게 되었고, 특히, 기존에 소외되었던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소득의 증가비율보다 더 높은 여가소비지출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

3. 여가오락서비스지출구조 분석을 위한 추정식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라 할 수 있으며, 소비지출은 소득의 함수라 할 수 있다.

Engel 함수는 소비지출의 각 비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elasticity of demand)을 측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소득을 설명변수로 하여 비목별 소비지출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서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C_i = \alpha_i + \beta_i Y_d + \mu_i \quad \text{----- [1]}$$

$$\ln C_i = \alpha_i + \beta_i \ln Y_d + \mu_i \quad \text{----- [2]}$$

- C_i는 비목별 한계소비성향,
- Y_d는 가처분소득,
- [1]식의 회귀계수(β_i)는 i재의 한계소비성향
- [2]식의 회귀계수(βⁱ) i재의 소득탄력성]

두 추정식에서 한계소비성향과 소비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1]식은 선형(linear form) 회귀방정식으로 R.G.D Allen & A.L. Bowley 이래

널리 사용되어 왔다. [2]식은 양대수형(double-logarithmic form)으로 R.Stone, S. J. Prais & H.S. Houthakker 에 의하여 사용되어왔다.

[1]식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을, [2]식에서는 소비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식에서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신에 가구당 소비지출과 비목별 소비지출과의 함수관계를 추정하였다.

$$\ln C_i = \alpha_i + \beta_i \ln \sum_{j=1}^n C_j + \mu_i \text{ ----- [3]}$$

[3] 식에서 비목별 소득탄력성의 추정은 비목별 지출이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에 지배를 받으며, 소비지출이 가계소득의 대리척도로 사용되어왔다.

이와 같은 소비지출에 대한 회귀선을 적용하여 소비지출 비목의 지출에 대한 긴급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즉, 소득탄력성 계수는 소비지출의 긴급요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eta_i > 1$ 의 비목은 사치재로 지출의 증가에 따라 지출을 이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탄력성이 1이상이 되는 재화이다. 반대로 $\eta_i < 0$ 인 비목은 열등재로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감소하는 재화이다. 그리고 그 중간 값을 취하는 것이 필수품이다.

4. 소비지출의 영향요인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크게 경제적 변인과 인구통계적변인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변인인 소득으로 소비지출은 이용 가능한 소득의 양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의 소득인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영숙 외, 2001). 인구통계적 변인은 비록 시간에 걸쳐서는 경제적 변인에 비해 안정적이긴 하지만 횡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계간 소비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그 정도를 높여주는 변인이다(생활경제연구모임, 1993).

가계구성원의 연령, 성별에 따른 선호나 욕구는 소비의 차이를 보이며(이기춘, 1990), 가구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규모도 커진

다. 즉, 가족원수가 많으면 취업원수가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일정할 경우, 가족원수가 많으면 소비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 물적 자원이 감소하여 소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가족원수의 증가는 소득획득의 증가에 의한 소비감소 효과의 두 가지 효과로 작용하게 된다(생활경제연구모임, 1993).

교육수준과 소비와의 관계에서 교육수준은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동일한 투입요소를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Michael, 1973) 교육과 소비는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가계의 소비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은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직업으로 인해 소비행동에 비슷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준거집단과 접촉을 하게 되거나 가계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직업은 소비선호, 소비자선택, 소비지출패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서 소비지출은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가계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소비지출구조는 어떠한가 ?
- 2) 가계특성에 따라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은 차이가 있는가 ?
- 3) 가계특성이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가계특성은 가구주의 연령, 학력, 직업과 가계소득, 가족수를 조사하였고,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홍성희, 1991; 김외숙 1991; 이정연, 1997) 및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기초하여, 여가오락서비스 영역을 공연 및 관람, 취미 및 교양강좌, 건강 및 스포츠, 여행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후 분류된 영역에 대하여 월평균지출을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 가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30일 까지 가계의 소비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에 부적절한 15부를 제외한 17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가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월평균 여가오락서비스지출과

항목별 지출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여가오락서비스의 항목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가계특성에 따른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에 의한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 가계의 특성 및 여가오락 서비스 지출

조사대상 가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 가계의 특성

n=175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연령	30대	54	30.9	가족수	3명 이하	33	19.3
	40대	121	69.1		4명	100	58.5
학력	고졸	110	62.9		5명 이상	38	22.2
	대졸이상	65	37.1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7	25.2
직업	전문직	34	19.5		200~300만원 미만	52	35.4
	비전문직	140	80.5		300~400만원 미만	23	15.6
	가구주연령	30대	22		13.1	400만원 이상	35
40대		127	75.6		M/S.D	3,121,088	1706554
50대 이상		19	11.3	가계지출	100만원 미만	53	32.5
가구주학력	고졸	87	51.2		100~150만원 미만	42	25.8
	대졸이상	83	48.8		150~200만원 미만	25	15.3
가구주직업	전문기술	13	7.9		200만원 이상	43	26.4
	행정관리	31	18.8		M/S.D	1,522,086	795009
	사무관리	34	20.6				
	판매서비스	40	24.2				
	생산기술직	47	28.5				

※ 전체 빈도의 차이는 missing value에 의한 것임.

분석결과, 주부의 연령은 30대가 전체의 30.9% 였고, 40대가 69.1% 였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30대

가 13.1%, 40대 75.6%, 50대 11.3%였다.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62.9% 였고, 대졸이상이 37.1%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51.2%, 대졸이상이 48.8% 였다.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의 경우 전문직이 19.5%, 비전문직이 80.5% 였고, 가구주의 직업은 전문기술직이 7.9%, 행정관리직이 18.8%, 사무관리직이 20.6%, 판매서비스직이 24.2%, 생산기술직이 28.5%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3명이하가 19.3%, 4명이 58.5%, 5명이 22.2%였다.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25.2%, 200~300만원 미만이 35.4%, 300~400만

원 미만이 15.6%, 400만원 이상이 23.8%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은 100만원 미만이 32.5%, 100~150만원 미만이 25.8%, 150~200만원 미만이 15.3%, 200만원 이상이 26.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계의 월평균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과 그 구성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소비지출 중 여가오락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과 백분율 및 여가오락서비스 중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세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월평균 여가오락서비스지출 및 그 구성비 및 백분율

항 목	평균(원)	전체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	여가오락서비스 중 차지하는 비율
		백분율(%)	백분율(%)
공연 및 관람	49,285(원)	3.52	34.84
취미 및 교양강좌	29,428(원)	1.76	15.72
스포츠 및 오락활동	41,028(원)	2.77	18.28
여행	70,600(원)	4.67	31.15
전체	190,342(원)	12.89	100.00

※ 전체 소비지출 평균=1,522,086(원)

분석결과,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은 월평균 190,342(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12.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세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여가오락서비스 중 공연 및 관람(34.84%)과 여행(31.15%)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취미 및 교양강좌(15.72%)와 스포츠 및 오락활동(18.28%)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가계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 분석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항목별 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특성(가구주 연령, 학력, 직업, 가족수, 가계소득)별 소비합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1) 연령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

가구주 연령별 여가오락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 계수를 추정한 결과 가구주연령이 30대와 40대 가계의 경우 1보다 낮게 나타나 필수적 성격을 나타내었으나 50대이상의 가계에서는 1보다 큰 선택적 항목으로 나타나 소득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여가오락서비스에 대한 지출율이 높아 이에 대한 열망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미 및 교양강좌와 여행의 경우 탄력성계수가 3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가계를 비교 해볼 때 40대 가계에 비해 30대 가계에서 다소 탄력성계수가 높았으며, 세목별로 살펴볼 때 30대 젊은 세대에서 취미 및 교양강좌와 여행의 경우 소득탄력성 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 선택적 항목으로 나타났다.

2) 학력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

가구주 학력별 여가오락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 계수를 추정한 결과, 고졸이하 가계와 대졸이상 가계

모두 소득탄력성 계수가 1보다 낮은 필수적 나타났다. 세목별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취미 및 교양강좌와 여행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 가계보다 대졸이상의 가계에서 열망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항목별 소득탄력성

변인	항목	공연관람		취미 및 교양강좌		건강 및 스포츠		여행		전체	
		α	β	α	β	α	β	α	β	α	β
전체		4.413	.446	-3.081	.960	6.247	.309	-.394	.823	.448	.811
연령	30대	5.518	.389	-3.971	1.068	-.142	.797	-3.001	1.029	.668	.814
	40대	3.767	.488	-2.098	.887	9.680	.080	.732	.158	.821	.214
	50대	-8.308	1.326	-40.958	3.569	-13.508	1.676	-33.728	3.107	-15.161	1.894
학력	고졸이하	4.086	.467	.000	.721	15.192	.319	.483	.758	1.182	.745
	대졸이상	4.743	.423	-2.245	.915	1.824	.630	.066	.830	2.972	.646
직업	전문기술직	4.749	.435	-3.926	1.045	4.608	.451	-3.134	1.044	.659	.831
	행정관리직	3.830	.494	-3.132	.974	3.500	.523	3.246	.571	5.984	.432
	사무직	13.809	-.219	3.773	.481	1.275	.651	.572	.745	3.832	.584
	판매서비스직	4.928	.379	-5.725	1.138	12.241	.111	-3.55	1.024	3.417	.594
	생산기술직	2.259	.601	12.187	-.156	19.328	-.609	6.494	.340	.349	.804
가족수	3인이하	6.323	.320	-4.487	1.066	6.480	.317	-1.727	.924	2.549	.667
	4인	3.600	.502	-3.509	.987	6.301	.319	2.245	.630	-.795	.898
	5인이상	2.022	.607	1.529	.640	5.168	.376	-4.030	1.077	-1.394	.938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5.520	.363	4.789	.354	13.037	-.202	-1.869	.899	3.061	.604
	200-300만원미만	4.044	.460	2.767	.566	9.854	.057	13.874	-.173	.411	.811
	300만원 이상	5.272	.394	-9.715	1.416	7.669	.236	-3.571	1.051	3.483	.611

※ 추정식 : $\ln C_t = \alpha + \beta_t \cdot \ln \sum_{i=1}^n C_{it} + u_t$ α:상수, β: 소득탄력성

3) 직업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

가구조 직업별 여가오락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전문기술직 가계와 판매서비스직 가계의 경우, 취미 및 교양강좌, 여행에서 소득탄력성 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들 항목에 대한 열망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산기술직의 경우 취미 및 교양강좌, 건강 및 스포츠 항목에서 소득탄력성 계수는 부적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른 소득을 이상의 감소를 보여준다.

4) 가족수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

가족수별 여가오락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 계수

를 추정한 결과, 취미 및 교양강좌는 3인이하 가계에서 소득탄력성 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 열망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행의 경우 5인 이상 가계에서 소득탄력성 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 열망도가 높게 나타났다.

5) 가계소득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

가계소득별 여가오락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취미 및 교양강좌 와 여행에서 소득탄력성 계수가 1이상의 선택적 항목이었으며,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른 소득을 이상의 증가를 보여 비교적 고소득 가계에서 그 열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차이분석

가계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과 구성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1) 연령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차이분석

가구주 연령별 여가오락서비스지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체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분석에서 공연관람항목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구성 비율 면에서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소비지출 중 공연관람의 지출비율(65, 909

원, 6.0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연 및 관람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 보인다.

2) 학력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차이분석

가구주 학력별 여가오락서비스지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학력에 따른 분석결과는 지출과 구성비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고졸이하 가계가 113,563원(9.93%)을 지출하였으며, 대졸이상 가계가 279,216원(16.32%)으로 학력수준이 높을 때 그 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그 지출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수준이 높은 가계에서 그 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구성 비율은 취미 및 교양강좌(고졸이하: 1.05%, 대졸이상: 2.52%)와 여행(고졸이하: 2.99%, 대졸이상: 6.62%)로서 학력수준이 높은 가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가계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차이분석

변인	집단	공연관람		취미 및 교양강좌		건강 및 스포츠		여행		전체	
		M(원)	D	M(원)	D	M(원)	D	M(원)	D	M(원)	D
연령	30대	65909		45000		46363		77500		234772	
	40대	45590		25472		38031		72086		181181	
	50대이상	67105		44736		66052		77368		255263	
	F-value	1.954		2.442		1.535		.033		1.394	
학력	고졸이하	36149		13850		26379		37183		113563	
	대졸이상	65060		46626		57951		109578		279216	
	F-value	10.813**		21.169***		10.237**		18.473***		29.745***	
직업	전문기술직	68461	ab	49615	ab	88076	ab	167307	a	373461	a
	행정관리직	75322	a	58225	a	63548	a	88870	b	285967	ab
	사무직	60441	abc	30375	bc	31911	bc	97500	b	220588	b
	판매서비스직	40125	bc	28125	bc	50625	bc	57000	b	175875	bc
	생산기술직	32978	c	8829	c	18723	c	35744	b	96276	c
	F-value	3.384*		5.763***		4.505**		4.375**		7.211***	
가족 수	3명 이하	53939		30000		59696		63181		206818	
	4명	49350		28950		40050		76800		195150	
	5명 이상	50263		33289		31710		68157		183421	
	F-value	.075		.107		1.711		.203		.105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35405	b	9324	b	15405	b	28648	b	88783	c
	200-300만원미만	40480	b	40000	a	37115	b	76634	a	194230	b
	300만원이상	79568	a	43017	a	68706	a	114310	a	305603	a
	F-value	9.325***		5.952**		8.815***		6.139**		13.134***	

<표 계속>

변인	집단	공연관람		취미 및 교양강좌		건강 및 스포츠		여행		전체	
		구성비율(%)	D	구성비율(%)	D	구성비율(%)	D	구성비율(%)	D	구성비율(%)	D
연령	30대	6.09	a	3.04		3.11		6.40		18.66	
	40대	3.21	b	1.57		2.74		4.75		12.53	
	50대이상	3.56	b	1.92		3.23		3.63		12.36	
	F-value	5.009**		2.644		.105		.670		2.191	
학력	고졸이하	3.04		1.05		2.58		2.99		9.93	
	대졸이상	4.13		2.52		3.05		6.62		16.32	
	F-value	3.158		12.861***		.353		9.914**		11.04***	
직업	전문기술직	4.07		2.56	a	4.23		7.78		18.66	
	행정관리직	4.01		2.56	a	3.20		5.11		14.91	
	사무직	4.43		2.22	ab	2.14		6.67		15.81	
	판매서비스직	3.30		1.73	ab	4.33		3.62		13.00	
	생산기술직	2.96		.87	b	1.64		3.61		9.41	
	F-value	.819		2.423*		1.896		1.507		2.081	
가족 수	3명 이하	4.29		1.68		4.21		4.87		15.06	
	4명	3.46		1.79		2.80		5.14		13.21	
	5명 이상	3.36		1.95		1.68		3.71		11.40	
	F-value	.609		.085		2.166		.481		.668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4.14		1.08	b	1.73		3.01		9.98	
	200-300만원미만	2.97		2.71	a	2.56		5.81		14.07	
	300이상	4.19		1.94	ab	3.84		5.62		15.61	
	F-value	1.601		3.648*		2.639		1.735		2.299	

* p<.05, **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수준에서 유의성 검증.

※ 구성비율 : (여가비/전체소비지출) × 100을 하여 산출한 값임.

3) 직업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차이분석

가구주 직업별 여가오락서비스지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문기술직가계의 지출이 373,461원으로 가장 높게 지출하였으며, 생산기술직이 96,276원으로 가장 낮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구성비면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여행의 경우 전문기술직이 167307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의 공연관람, 취미 및 교양강좌, 건강 및 스포츠 영역의 경우 행정관리직에서 높았다. 반면에 생산관리직의 경우 전반적인 수준에서 그 지출이 낮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낮게 나타났다. 그 구성비면에서는 취미 및 교양강좌의 경우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수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차이분석

가족수별 여가오락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출과 그 구성비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계소득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차이분석

가구주 직업별 여가오락서비스지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미 및 교양강좌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구 구성비 면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4. 가계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 영향요인분석

가계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영향요인을 분

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검토를 위하여 분산확대(VIF) 지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도시가계 여가오락서비스지출의 영향요인

독립	종속	공연관람		취미 및 교양강좌		건강 및 스포츠		여행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가 계 특 성	가구주연령										
	가구주학력			5848.5	.287**	7728.2	.296*	8583.2	.178*	25858.5	.295**
	전문기술직					43478.9	.176*	74655.5	.164*	130008.1	.157*
	행정관리직	25821.3	.170*	26023.7	.201*						
	사무직										
	판매서비스										
	가족수										
	가계소득	6.531E-03	.185*					1.489E-02	.210*	2.384E-02	.185*
Constant	29862.1		-51375.9		-64444.2		-88574.7		-223564.0		
R ²	.079		.160		.148		.172		.237		
F-value	6.007**		13.366***		12.168***		9.629***		14.377***		

* p<.05, ** p<.01, *** p<.001 직업: 생산기술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더미 변수화하였음.

전반적인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학력, 직업(전문기술직), 가계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3.7%로 나타났다. 가구주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기술직 가계보다 전문기술직 가계에서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이 높으며,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김영숙 외, 20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연 및 관람을 통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과 직업(행정관리직)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7.9%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기술직가계보다 행정관리직에서 공연 및 관람을 통한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교양강좌에 대한 지출은 가구주학력과 직업(행정관리직)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16.0% 이었다. 가구주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직업의 경우 생산기술직에 비해 행정관리직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건강 및 스포츠를 통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학력과 직업(전문기술직)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14.8%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기술직에 비해 전문기술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통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학력, 직업(전문기술직), 가계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17.2%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산기술직 가계보다 전문기술직 가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첫째, 가계 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를 분석한다. 둘째, 가계 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은 월평균 190,342(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12.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여가오락서비스 중 공연 및 관람(34.84%)과 여행(31.15%)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지출 항목 중 공연 및 관람문화의 높은 비율은 공연 및 관람 문화가 우리의 생활문화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여행의 경우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여가생활로 정착되는 단계이므로 비교적 높은 지출을 보였을 것이다.

둘째, 소득탄력성 추정을 통해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취미 및 교양강좌(.960)와 여행(.823)의 소득탄력성 계수가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열망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소득탄력성 분석결과 가계특성별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인 가구주 연령이 50대 가계에서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모든 항목에서 소득탄력성 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 소득률 이상의 증가를 보여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 가계와 판매서비스직 가계에서, 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계에서 취미 및 교양강좌와 여행의 소득탄력성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 열망도가 높아 이들 가계에서 취미 및 교양강좌를 통한 자아성취나 여행을 통한 여가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가계특성별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의 차이분

석결과, 공연 및 관람의 경우 그 구성 비면에서 30대 가계가 전체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항별로 다소차이는 있지만 학력이 높은 가계일수록, 전문기술직가계와 행정관리직 가계에서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교육수준은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동일한 투입요소를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수준은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직업으로 인한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되어(Michael, 1973) 여가오락서비스 지출은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소득수준별 차이분석에서 모든 항목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 여가오락서비스지출이 높고, 공연 및 관람, 여행, 전체에서 소득의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최근 주 5일제의 확산과 더불어 여가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고의 전환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에서 시설 및 여가활성화 정도가 미흡한 공연 및 관람, 취미 및 교양강좌를 위한 여가시설의 확대와 공연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문화시설 및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은 대학 및 지역사회 지원,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전시 활동 및 시설의 부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여건 개선과 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주말에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등의 공공문화시설과 주거지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가계 특성에 따라서 여가오락서비스 지출구조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소비자 특성별로 차별화하여 여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행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생활문화를 기본으로 한 주말문화 레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투고일 : 2004년 2월 14일

참고문헌

- 강석희(1999). 여가활동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순목(2001). 한국인의 여가소비 지출구조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화, 문소상(2000). 주가와 소비의 관계분석. 금융경제연구 제110호. 한국은행.
- 김영숙(1989).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숙, 심미영, 장정희(2001). 성인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꽃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비문화연구 4권1호.
- 김의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의숙(1993).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김의숙(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정책. 대한가정학회지 34(5).
- 김의숙, 조희금, 두경자(2002).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 생활경제연구모임(1993). 소비경제학. 도서출판한울.
- 이기준(1990). 가정경제학. 교문사.
-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1).
- 이정연(1997). 여가활동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심미영, 김영숙(1997).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여가생활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 이현아, 이기영, 김의숙(1999)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 오순환(2000). 한국여가문화의 이해. 일신사.
- 표영희(1996).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llen,R.G.D., and A.L.Bowley(1935). Family Expenditure. London : Staples.
- Campbell, A., P.E. Convers and W.L. Rodgers(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 Dardis, R., Derrick, F, Lehfeld, A., and Wolf, K.E.(1981). Cross-Section Studies of Recreation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3).
- Dardis, R., Soberon-Ferrer, M., Patro, P.(1994).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4).
- Michael,R.T(1973). Education in Non-market Produ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 Pris,S.J., and H.S. Houthakker(1971).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 2nd ed.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lbot, M. N.(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 for Entertainment Eervices. *Family Economics Review*, 2(4).
- Tinsley, H., & Tinsley, D.(1982). Psychological and Health Benefits of the Leisure Experience. II: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Thompson, C.S., & Tinsley, A.W.(1978). Income Expenditure Elasticities for Recreation : Their Estimation and Relation to Demand for Recre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0(4).